

Art toy

'아트토이-ducobi CLIQUE'전에 가보나... 16일까지 금호갤러리

남녀노소 불문... 즐거움만 나누자

클레인 작 'NBA' 시리즈.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현대미술 장르로 탄생

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전시에 참여한 우드토이 작가 양재영씨는 소녀시대 멤버들을 모델로 한 'Girls Generation'과 북극곰,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에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Save The Earth' 시리즈 등을 전시했다.

검은색 동그란 선글라스에 트랜치코트를 입은 늑대와 빨간 망토 차치는 '레옹'과 '마틸다'를 연상하게 했고, 바바리코트를 입은 계승초래한 눈의 키크랜더는 '바바리맨'을 떠올리게 했다. 양씨는 이 밖에도 소년중앙 연재했던 '로봇제빠', 류현진을 닮은 '미스터고',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 자켓 이미지에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를 입혀 만든 작품으로 웃음을 선물했다.

전시 작품들은 특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작품보다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작가들이 마지막까지 '보물창고'에 소장하고 있던 아트토이들이었다.

양재영씨는 "듀코비 플랫폼이 주축이 돼 아트토이 문화를 광주에 알리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기계가 만든 작품보다 더 정교하고 감성이 녹아 있는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듀코비 플랫폼 작 '듀코비' 시리즈.

전시 기획한 듀코비 김용기 대표는 "아트토이가 아직까지는 순수회화 등에 비해 외면받는 분위기지만 세계 유명작가들은 협업을 통해 아트토이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작품세계를 아트토이에 녹이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광주에 아트토이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다. 무료 관람. 문의 062-360-8436.

/글·사진=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어린 시절의 추억은 삶에 큰 활력이 된다. 때론 만화책을 보며 웃고, TV 만화영화를 보면서 가슴 속에 품었던 나의 작은 영웅들, 즉 만화 속 주인공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키덜트(Kidult)' 문화다. 아이들과 같은 감정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하는 말로 유년시절 즐기던 장난감 등을 수집하면서 향수를 느끼는 '순수한 어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트토이(Art toy)'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장난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트토이는 작가의 예술관이 묻어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이미 현대미술의 한 장르가 됐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아트토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초대전 '아트토이-ducobi CLIQUE'를 찾았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둘러본 전시는 한마디로 미소 짓게 만드는 전시였다. 만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고, 아트토이 작가들과 팝아트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보며 새로운 즐거움을 얻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NBA 아트토이' 시리즈로 유명한 아트토이 작가 클레인(coolrain)의 작품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시되고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 등 NBA 선수 저마다의 특징을 작품에 녹여낸 클레인의 작품과 다이나믹듀오 등 합창 가수 엔터테이먼트 아메바컬처 소속 가수들의 피규어, 레드불과 콜라보레이션 작품인 클레인 소속 밴드인 팩토리 라닝훈즈 등 작품이 한쪽을 장식했다.

그 옆에는 아트토이 플랫폼 듀코비(ducobi)의 아트토이 시리즈가 전시됐다. 아이언맨, 마키·미니 마우스, 스카이다이버 등 익숙한 캐릭터 토이와 자개로 만든 명품 듀코비 시리즈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듀코비는 특히 아메바컬처 메인 아트디렉터 GFX,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NJ SUNG, 의류브랜드 팬콧의 디자이너 BABYNINE 등 9명의 작가들과 협업한 콜



우드토이 작가 양재영씨와 소녀시대를 모티브로 만든 'Girls Generation'.

Romantic

화이트데이, 이보다 더 로맨틱할 순 없다

광주시향 화이트데이 콘서트 14일

광주시향교향악단은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화이트 데이 콘서트를 연다.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사랑'을 테마로 한 곡들을 들려준다.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니콜라이의 '원저가의 즐거운 아나네들' 서곡, 말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 에토'가 주 레퍼토리다.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 '피아노협주곡 2번'도 만날 수 있다. 협연자는 이스라엘 출신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서울대 기악과 교수)다.

1997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그는 예피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아비람 라이케르트

문웅휘·이효주 듀오 리사이틀 14일

문웅휘·이효주 듀오 리사이틀은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최근 독일 ARD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악 4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첼로 주자 문웅휘는 쾨데레스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트리오 제이드'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효주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만 꾸민 '프렌치 로스트'가 공연 주제다.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라 단조 작품 135', 풀랑의 '첼로 소나타',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중 5악장 '예수의 영원성을 위한 찬가', 풀랑크의 '첼로 소나타 가장조'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문의 062-360-8437.



문웅휘



이효주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16일

아마도 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휘슬러 송(The Whistler's song)'은 TV 일기예보에 오랫동안 사용됐고 각종 CF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음악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레인보우 브리지(Rainbow Bridge)' 역시 귀에 친숙한 곡이다.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광주에서 첫 무대 '화이트 데이 콘서트'를 펼친다. 16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2005년 첫 내한 공연 후 여러 차례 한국을 찾은 그는 '서울 남자, 평양 여자(He is from Seoul, She is from Pyongyang)'라는 곡을 작곡,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The Whistler's song' 'The flying' 'I'm sorry', 'day by day'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현악 4중주단 콰르텟 수(秀)가 함께 무대에 오르며 팬 사인회도 계획되었다. 8만8000원~3만3000원. 학생 50% 할인. 문의 032-322-2121. /김미은기자 mekim@



스티브 바라캇



창업 32주년 **KJB**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타(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타(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피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라인)

부담없는가격·풍부한 샐러드 바
웰빙의 야채와 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부타(포동)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

